

아들 이어 투사로... 35년 민주화운동의 대모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 별세

대학생·농민·노동자 등과 부조리한 사회에 맞선 현장 어디든 동행 2020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받아... 11일 광주 5·18묘역에 영면

아들인 이한열 열사가 꿈꾸었던 민주주의를 위해 아들의 삶을 이어 살았던 '민주화운동의 대모' 배은심 여사가 9일 새벽 5시 28분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2세.

배 여사는 지난 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8일 퇴원했다. 퇴원 후 건강을 회복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루 만에 다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배 여사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명예회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앞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시위에 참석하는 등 여든이 넘는 고령임에도 최근까지 민주화운동 현장에는 어디든 달려갔다.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 여사는 아들이 사랑한 것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 가입해 대학생, 노동자, 농민 등의 민주화 시위·집회 현장에 참석했다. 1998년에는 유가족협의회장을 맡아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22일 동안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이끌었다. 1991년 대학생 분신 정국을 비롯해 2009년 용산참사, 2014년 세월호참사, 2016년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 등 억울한 죽음이나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함께했다.

투쟁의 선두에 서다 보니 여러 차례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1989년 전교조 해직 교사 복직을 요구하다 연행된 딸을 면회하려다가 폭행을 당하는 등 거리에서 맞고 최루가스를 마시는 일이 일상이었다.

생전 고인은 "전두환 집 앞에서 '젓값을 치르라'

고 소리를 지르면 경찰이 '닭장차'에 실어서 난지도 같은 데 내려줬다"고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20여년째 공전 중인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한열을 비롯한 민주 열사들이 여전히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남아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배 여사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유가족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기를 바랐다.

배 여사는 35년간의 민주화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6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이날 오후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영정사진이 오르자마자 지역과 전국 각지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들은 이날 일제히 보도자료를 통해 "반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생전 고인의 희망대로 국회가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니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9일 장례위원회 구성 대표자 회의를 가졌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서대문갑) 국회의원이 호상을 맡았고, 한동건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 장남수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박봉주 광주전남추모연대 대표가 상임장례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10일 오후 7시 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도의 밤'을 행사를 연다. 발인은 11일 오전 9시이며 이어 오전 11시 5·18민주광장에서 노제를 지내고, 장지는 광주 망월동 5·18묘역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해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 직후, 민주열사묘역을 찾은 배은심(가운데) 여사와 정세균(맨 오른쪽) 전 국무총리, 미얀마인들이 이한열 열사를 참배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청년공작소 입주 기업 모집

광주 북구, 28일까지

광주시 북구가 두암·오치 영구임대 아파트 상가를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으로 제공한다.

9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영구임대 아파트 청년공작소에 입주할 청년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마을공방 육성사업'과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청년공작소 입주 자격은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기간이 5년 미만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총 10개의 청년기업을 모집한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창업 공간 무상 이용,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4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 두암주공4단지외 오치주공1단지 상가 지하 리모델링은 이달 중 끝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북구청 특화마을육성성과로 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 내 청년공작소 조성사업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해 발생 학교시설물 신속 복구 방안 마련

광주교육청, 교육청 최초로

광주교육청이 기상이변 등으로 발생하는 학교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 최초로 학교시설물 긴급복구 방안을 마련했다.

국지성 폭우 등으로 경사면 유실 등 학교시설물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학교에서 신속한 복구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

시 교육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해발생시 긴급으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문업체가 최단시간에 긴급복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시설물에 대한 재해발생시 전문 업체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연초에 입찰을 통해 사전에 계약한다. 이후 피해발생 학교에 신속하게 전문 인력을 투입해 긴급복구 및 안전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광주교육청 교육시설과장은 "매년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대하여 긴급복구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아프간 유아·청소년 창의·융합교실 열어

전남교육청, 로봇·VR체험... 17~21일 진학 상담 예정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여수해양경찰교육원 체육관에서 아프가니스탄 학령기 청소년 69명을 대상으로 창의·융합교실을 열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중 유아·청소년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교육에 나선 전남교육청이 전남도청의 융합교육원과 연계한 창의·융합교실을 개최한 것이다.

여수해양경찰교육원 체육관에서 아프가니스탄 학령기 청소년 69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학령별(초 5-6년 23명·중 27명·고 19명) 발달 단계를 고려해 로봇체험과 VR체험을 15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나눠 순환 부스 형식으로 진행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 대상자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주기 위해 가정학습용으로 과학교구 세트와 전자 노트패드를 제공했다.

또 여수교육지원청 진로진학지원센터와 협력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고 학령기 대상 진로·진학 상담교육 주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아프간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1대 1 개별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주민소통 거점 공간 '소원마을사랑채' 개소

광주 동구, 지원2동에 용강경로당과 함께...세대간 소통의 장

광주 동구는 설계부터 개소까지 주민들이 참여한 지원2동 소원마을사랑채 및 용강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참석자들은 마을사랑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공유 부엌 시연 프로그램 '소원마을 양금 케이크 만들기'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동구 관내 7번째 주민소통 거점 공간으로 조성된 지원2동 소원마을사랑채는 총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입해 약 37평 규모에 ▲다목적실 ▲공유 부엌 ▲미니 포토존 등으로 꾸며졌다.

동구는 지원2동 소원마을사랑채가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 따라 '아동친화형 마을

사랑채'로 조성돼 이날 함께 개소한 용강경로당과 한 건물에 자리 잡아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소통과 나눔의 공유공간인 마을사랑채를 지원2동에 개소하게 돼 기쁘다"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마을의 거점공간으로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 관내에는 기존에 개소한 지산2동, 학운동, 산수1동, 학동, 지원1동, 지산1동, 지원2동 등 총 7개가 조성·운영 중이며, 향후 6곳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A, AIG, 아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